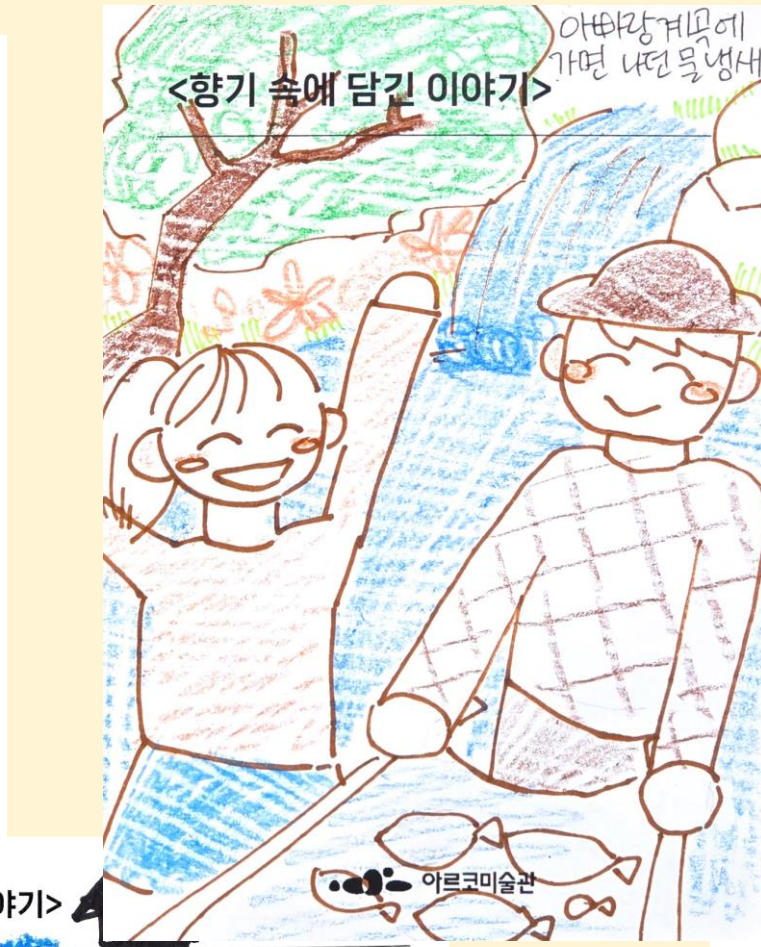




우리 아기 웃는 모습
 목욕할 때 잠들 때
 웃을 거리고 먹은 때
 그냥 아득한 향이 없지만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세상이다.

큰아 여짜라 사랑 그 어떤 것도
 자극하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다시 많이
 기억 채워 주고 알려 준다.
 흥흥하리 부르러는 너의 사랑
 엄마는 놓아내리라

아르코미술



아빠랑 계곡에
 가면 내린 물 냄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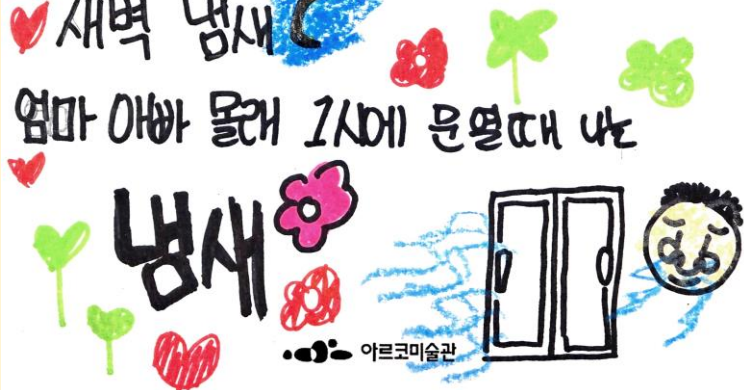
<향기 속에 담긴 이야기>

아르코미술관

우리 엄마랑 꼭 기억날 것
 때 나는 그 향기
 너무 행복해요



새벽 냄새
 엄마 아빠 몰래 1시에 문 열 때 나는
 냄새



아르코미술관

엄마한테서 안길 때 나는
 향기



아르코미술관

<향기 속에 담긴 이야기>

우리집 강아지 초코는 다양한 냄새가 난다.

머리에서는 미역국 냄새 ~ 발에서는 팝콘냄새 ~

산에 다녀오면 내가 산에 가지 않아도

초코에게서 산의 냄새가 난다.

초코는 11살 할아버지. 가끔은 초코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나던 아기 강아지 냄새가 날 때도 있다.



그 향을 맡은 날은 11년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다.

이 향기들을 영원히 맡고 싶은 건

나의 욕심이겠지

11년이 참 빠르다!

우리 같이 자란 거겠지?

아르코미술관

<향기 속에 담긴 이야기>

무심지만
Dante's

우리 강아지
발간

아르코미술관

아르코미술관

초등학생 시절 친했던 친구의
반려강아지의 꼬순내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강아지에서 폭발 냄새가
납니다. 가끔 그리워집니다.



서늘한 여름 이불에 베인 아주아주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향..

나는 살짝 귀족 말리는 향과 비슷하다고
느껴진다. 우리집 고양이 울우는 파바꽃



햇살 아래 일렁임을 즐겨하는데

이 뜨거운 냄새가 울우에게도

베어 나는 자고 있는 울우는:

밤 속에 꿀 울은 이 냄새를 핑크빛과

바탕 것을 좋아한다.

Mewo (울우는 겨울을 싫어하..)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을 때
반가움의 포옹에서 나는
포근한 향기.



유치원 교실 냄새!

퇴사 해서 이젠 말할수 없지만
떠올리면 가장 그리운 냄새.
애기 냄새, 땀냄새, 먼지냄새,
원목교구 냄새 등이 섞여서나는
교실에서만 나는 특유의 따뜻한 냄새가 있다



아르코미술관

훈련소 향기.

처음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생활관 외자에 앉아
조용히 조교를 기다리던 적막과 그 어색한
공기 속에서 느껴지던 생활관의 칙칙한 냄새를
잊지 못합니다. 이제 이곳이 내 집이구나...
하터 느끼던 그 좌절감... 아직 전역은
못했지만 얼른 사회의 향기를 맡고 싶습니다.



아르코미술관

초등학교 체육대회에서만 말할수있는
암냄새 풀냄새 햇빛냄새
먼지냄새 바퀴냄새... 그리고 열정..



나는 향기하면...

시장이 가장 생각난다.

갓가지의 비운기지가 널려나는!

병뚜껑이 가는 속까지 시끄러운 푸른
겨드날의 향이 가장 좋다.

향기에 대해 기록할 생각은

못해봤는데 더 좋은 기억을 위해

향기도 함께 기억해야겠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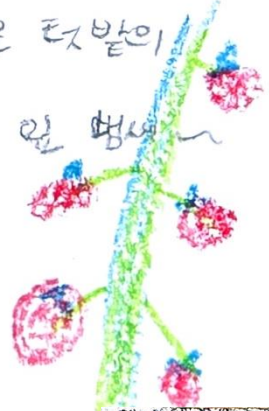
생각했다... 향기는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르코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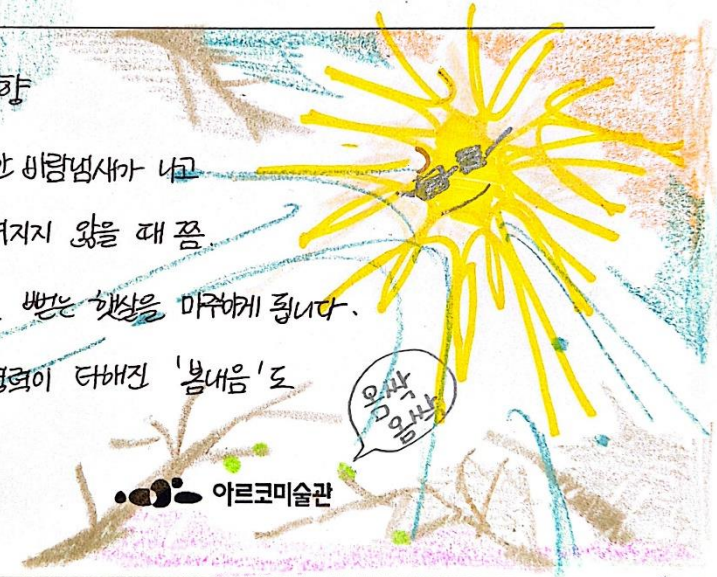
텃밭에 심긴 토마토 5 그루.. 열매가 한번에 많이 열리고
 익어버려서 영매가 떨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따 먹으라고 타박하셔서
 학교 후 바로 텃밭으로 가서 토마토를 따서 앞에 놓고 우물거리는
 채로 교복 치마에 감싸서 집에 올라갔을 때 맡은 텃밭의
 흙냄새 ~~내~~ 내 손과 팔을 스치던 토마토 가지라 만 병새
 갖 따서 풋풋한 냄새가 나던 토마토 냄새



아르코미술관

<향기 속에 담긴 이야기>

계절이 바뀌는 향
 겨울이 올 때는 건조한 바람냄새가 나고
 각양해져 향기로 느껴지지 않을 때쯤
 겨울보다 여러갈래로 뻗은 햇살을 마취하게 줍니다.
 그 때 음식대는 생명력이 터버진 '봄내음'도
 많이 줍니다 :).



아르코미술관

아마 7살쯤 (1995년 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큰 슬픔에 지내시게 되어
 제턱마다 막걸리를 드셨어요
 주전자에 막걸리를 사서 집으로 가져와
 낮게 내려 앉은 저녁냄새에,
 밥짓는 이웃집의 냄새에,
 울적하는 마음에 땅만 바라보던 아이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르코미술관



가을날 만라향기
 인제된 향연적 벽의
 시적인 냄새, 나무가
 냄새, 노란 불빛
 커질수록 밤 익은 냄새

<향기 속에 담긴 이야기>

초등학교 시절, 하교하면 작곡 학교와 가까운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들르곤 했다. 언제가도
 얻을 가득 웃음과 따뜻한 냄새로 가득한 마소로
 반겨 주셨다. 온정 가득한 전 냄새, 혹은 푸르른
 여름 들꽃 향이 나기도 하였다. 또 랜치 로를 은레된
 장승 냄새가 나를 항상 안락되고 편안하게 만들었다
 평생 잊지 못하는, 잊을하고 애정하는 향이다.

아르코미술관